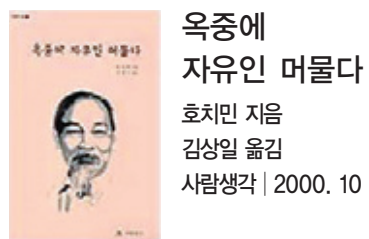


윤남진 Review

길을 가봐야 길 가는 어려움을 아나니



이 책의 원제는 '옥중일기'다. 호치민이 장개석의 도움을 받고자 중국에 갔다가 오히려 국민당 지역군벌에게 잡혀 약 1년간 베트남 접경지역의 18개 감옥을 전전하던 때에 쓴 시를 모아 놓은 것이다.

사자를 만났는데 도망칠 나무조차 없다면 사자의 넓적다리라도 한 입 때물고 죽을 것이며, 도망갈 나무가 있다면 내 죽은 살점 한 점도 줄 수 없으므로 나무에 몸을 묶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막다른 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문하고는 '은통 가시밭뿐이어서 헤치고 나갈 수 없는 길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강철 같은 의지의 강철 같은 표현이다.

호치민의 길은 어떨까? 길을 가 봐야 길 가는 어려움을 아나니 / 점점 산 너머에 또 점점이 산이 있네 / 점점 산 너머에 또 점점이 산이 있네 / 만리 지도가 눈앞에 펼쳐지리라. [走路, 길을 가며] 하는 유장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이는 '팔과 다리 묶여 있어도 / 산 가득한 새소리와 꽃향기를, / 한다.

책의 원제는 '옥중일기' 감옥전전하며 쓴 시 모아 베트남 영웅 '목민심서'에 감동 다산 기일이면 묵념올렸다 기술

자유로이 감상해도 금하는 이 없어, 묵인 채로 감옥을 전전하는 어려움도 여유를 가지고 풀어 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이끈 군사전략가이기도 하다.

그의 이런 면모는 '장기를 배우며'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눈은 응당 크게 뜨고 / 작전은 세밀해야 하느니, / 군세계 신속하게 때로 나아가야 처야 하리, / 길이 막히면 차 둘이라도 쓸데없고 / 때를 만나면 잘 하나로 성공을 거두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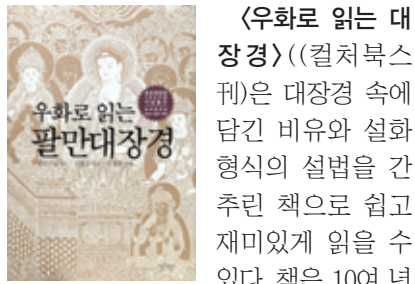
결국 그의 군대는 숲속에 은거만 하지 않고 군세에 신속하게 때로 나아가졌으며, 잘 하나(미약한 군사력)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때를 만들었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0년도 넘는 이 오래된 책이 최근의 어느 날 필자의 서재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이 책의 역자인 김상일 선생이 직접 선물해 준 필적이 있는 책(2005.11.4. 역사드림)이라는 인연을, 제자를 지식처럼 생각하는 자신의 다정한 인품을 생각하며, 이 낯선 나라 사람의 시집에 대한 훌륭한 독서록을 써준다.

대장경 천년해 맞아 어느 경전 읽을까?

'반야심경', '능엄경', '화엄경' 등 경전 소재 읽을거리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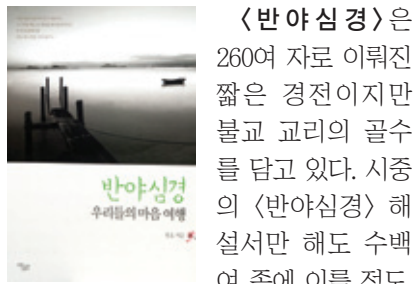
올해는 대장경 간행 1000년이 되는 해이다. 민중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대장경을 기리는 행사가 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를 비롯한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전을 소재로 한 책들이 많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전 <한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을 펴내며 대장경의 색다른 다이제스트를 시도했던 저자 진형중 씨가 독자들의 쉬운 대장경 읽기를 위해 작업한 결과물이다.

책에는 '사람을 고발한 개' '공주를 탐낸 여우' '옷에 음식을 바른 스님' '장님 부부의 세월' '그림자 때문에 싸운 부부' '미녀에게 현혹된 왕' 등 제목만 보아도 읽고 싶은 이야기 150여 가지가 담겨있다. 특히, 각 우화의 끝에는 성경 전문가 김경호 선생이 제작한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수록했다.

저자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한 묘미는 심오하고 난해한 교의에 있지 않다"며 "일반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듣고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비유와 설화 형식의 설법이 있다"고 말한다. **우화로 읽는 팔만대장경 | 진형중 지음 | 컬처북스 | 1만5000원**



대부분의 책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불교 교리를 필요로 하지만 초보자를 위한 책이 출간됐다.

총주 한 암자에서 수행하며 중앙경찰학교 경승으로 활동 중인 청호 스님이 펴낸 <반야심경 우리들의 마음여행>이 바로 그것이다.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중앙경찰학교에서 20~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반야심경> 강의를 해 온 것을 정리한 것으로 마치 법당에 앉아 스님의 육성을 듣는 듯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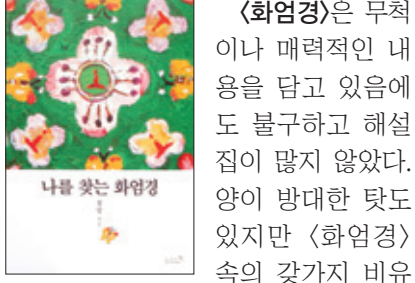
저자는 "흔히 무언가로 인해 마음의

갑등을 겪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의 실체를 모르 채 비우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마치 풍선 속에서 누르는 대로 옮겨가는 공기와 같을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마음, 즉 번뇌를 비우기 위해서는 풍선 속의 바람을 빼내기 위해 풍선을 묶어 둔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풍선을 묶어 둔 매듭을 푸는 노력이 바로 내 마음이 이뤄져 가는 과정을 설명한 오온과 공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그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저자는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세상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지혜롭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반야심경 우리들의 마음 여행 | 청호 지음 | 대숲바람 | 1만2000원



이상의 경전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도 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포교기법을 연구해 온 저자 고명석 연구원이 펴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읽기>가 바로 그것이다.

책은 궁극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전한다. 경전을 어떻게 읽을지 뿐만 아니라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책에서는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수행법으로서의 간경 등을 친절하게 정리해 놓았다. 책에 수록된 '경전 읽기 매뉴얼'만 봐도 당신은 이미 경전 읽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읽기 | 고명석 글 | 민속사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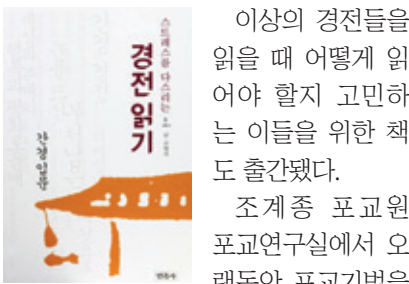
많은 내용 탓에 아무나 <수능엄경>을 읽을 수 없었고, 읽어도 그 뜻을 바로 알



대장경판을 통해 인경하는 모습

수 없었다. 산성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불교경전 연구자 설원 천명일 선생이 최근 펴낸 <수능엄경>은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 풀이한 책이다.

저자는 "<수능엄경>은 과학 속에 없는 답을 모두 수록한 진정한 과학백과사전이다. 이 경전을 읽어보면 그러한 진실에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수능엄경> 상·하 | 천명일 해설 | 천축 사문 반바리밀재 역 | 지혜의나무 | 각권 2만원**



이상의 경전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도 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포교기법을 연구해 온 저자 고명석 연구원이 펴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읽기>가 바로 그것이다.

책은 궁극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전한다. 경전을 어떻게 읽을지 뿐만 아니라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기서 놀면 재밌을까?"

<우화로 읽는 대장경> 중

어느 바닷가에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곳에는 500여 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그때 바닷가에는 파도가 만든 거대한 물거품 덩어리가 있었는데, 마치 커다란 산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원숭이들이 서로 말했다. "야, 저 산 정말 크네. 저기 가서 뛰어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때 한 원숭이가 그 물거품에 오르는가 싶더니 곧 그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원숭이가 나오지 않자 다른 원숭이들이 수근거렸다.

"저 물거품 산 속은 정말 즐거운 곳인가 보다. 그러니까 안나오는데 분명해."

그리고는 앞다투어 물거품 산으로 뛰어들었다가 모두 빠져죽고 말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바다란 생사의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물거품 산은 오온(五蘊)으로 된 몸을 말한 것이요, 원숭이는 사람의 마음을 빗댄 것이다. 중생들은 오온이 공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애욕에 집착한다. 그래서 생사의 바다에 빠져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노라." **<잡비유경>에서**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10 Buddhist books including '기도 (내려놓기)', '우리 곁에 계신 33천세음보살 이야기', '솔름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etc.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 3672-7181
Includes a photo of a bookshelf and a starburst graphic.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Features a photo of Paul F. Knitter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es a quote: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